



빈집에서 놀기

* 결과 보고서 *

*주관: 전북생명의숲(www.isoup.or.kr)

*후원: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목 차

1)사업명

2)사업목적

3)사업개요

4)사업내용

[세부 추진프로그램. 활동일지. 사진]

5월 빈집에서 놀기

6월 빈집에서 놀기

8월 빈집에서 놀기

12월 빈집에서 놀기

5)평가

6)지원금집행내역서

[첨부자료]

참가자 소감문

보도자료

정산서류

1) 사업명 : 빈집에서놀이 ‘왕희의 친구 찾기’

2) 사업목적

① 농촌 빈집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 농촌 몰락의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가 정주 공간의 불안정화이다. 정주할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주하고 있는 공간에 활력이 없다는 문제가 가장 크다. 이러한 농촌 마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빈집을 활용하여 도시민들과 도시아이들의 놀이공간이자 마을의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한다. 도시민들을 끌어들이므로써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다.

② 농촌 그대로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 현재 우리 농촌에서는 마을 개발계획이라는 명목하에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농촌의 생태적 공간들을 파괴해나가고 있다.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대규모 계획앞에서 농촌의 작은 가치들이 하나 둘씩 우리 곁을 떠나고 그위에 깨끗한 양육의 건물들과 도시민들의 체험공간이라는 시설위주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우리는 농촌의 작은 가치들의 파괴에서 벗어나 농촌 자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통하여 이익 창출을 한다.

: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먹거리의 위험속에 노출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먹을거리를 접할 수 있지만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촌체험 환경 교육 속에서 도시민들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촌의 농산물을 소개하여 도시민과 농민 두 그룹간의 이익 창출을 올릴 수 있다.

④ 향후 체험 마을로의 도약을 위한 주민 강사를 배출한다.

: 현재 정부에서는 녹색농촌체험 마을이라는 사업을 통하여 한마을에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0억 가까이 돈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돈들은 마을 앞의 땅을 매우고 건물을 짓는데만 그치고 있다. 지금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교육에 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농촌체험을 하고자 온 도시민들에게 교육해 줄 수 있는 주민이 없다면 건물은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가 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며 그들 각자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도시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3)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05년 5월 ~ 12월
- ▷ 장 소 : 남원매동마을
- ▷ 대 상 : 가족단위 일반시민
- ▷ 참여인원 : 총 159 名
- ▷ 주 관 : 전북생명의숲, 남원매동마을 주민
- ▷ 후 원 :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 ▷ 사업예산 : 총 천삼만구천오백원정 (10,039,500원)
(교보생명: 900만원/ 자부담 1백3만9천5백원)
- ▷ 사업내용 : 농촌빈집을 활용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4) 사업내용

▷ 전체 추진일정

일 시	장 소	프로그램	참여인원
2005년 5월 28일 ~ 29일 (봄편)	남원매동마을	- 마을어르신께 인사드리기 - 안전한 먹거리교육 - 지리산하늘밥먹기 - 농사체험(모내기, 친환경 양돈장 방문) - 빈집꾸미기1(토우인형) - 야밤놀이(강령탈춤) - 빈집꾸미기2(숫대만들기) - 농산물 소개시간	45名
2005년 6월 25일 ~ 26일 (여름편)	남원매동마을	- 마을어르신께 인사드리기 - 안전한 먹거리교육 - 지리산하늘밥먹기 - 농사체험(감자캐기) - 빈집꾸미기1(토우인형) - 야밤놀이 - 빈집꾸미기2(숫대만들기) - 농산물 소개시간	35名
2005년 8월 27일 ~ 28일 (가을편)	남원매동마을	- 마을어르신께 인사드리기 - 안전한 먹거리교육 - 지리산하늘밥먹기 - 농사체험(고추따기) - 빈집꾸미기1(토우인형) - 야밤놀이(판소리배우기) - 빈집꾸미기2(숫대만들기) - 농산물소개시간	42名
2005년 12월 3일 ~ 4일 (겨울편)	남원매동마을	- 마을어르신께 인사드리기 - 겨울놀이체험(쥐불놀이 깡통만들기) - 지리산하늘밥먹기 - 야밤놀이(쥐불놀이, 윷놀이) - 새끼꼬기 - 연만들기 - 안전한 먹거리만들기 - 농산물소개시간	37名

▷ 세부 추진프로그램 및 활동일지

- 2005년 5월 28일(토) ~ 29일(일)

시간	구분	장소/진행	주요진행방법
첫째날(5월 28일)			
09:30	출발준비 및 출발	전주시청앞 진행팀	참가자확인/일정표 배부
09:30-11:00	버스이동	차내 진행팀	일정소개, 안전사항전달, 진행팀 소개, 참가자소개
11:00-11:30	어르신께 인사드리기	마을회관 이영오위원장	마을어르신께 인사드리기(절하는 법 배우기)와 마을의 유래 이야기 듣기
11:30-12:00	안전한먹거리교육 색소실험&당도실험	마을회관 정수경	실험을 통해서 평소 즐겨먹는 과자류에 색소와 설탕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와 우리 몸에 어떻게 나쁜지 알아봄
12:00-13:00	중식 지리산하늘밥먹기	마을회관 정수경, 진행팀	지리산 자락에 나는 농산물로 만든 하늘밥먹기, 아이상과 어른상 구분으로 편식하지 않도록 유도함
13:00-13:30	휴식	마을회관주변 진행팀	마을주변 산책
13:30-16:30	농사체험 (모내기.축사방문)	마을앞논, 축사 이영오위원장	농사체험을 통해서 흙, 햇빛, 물의 중요성과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모내기체험과 친환경농법으로 치는 지리산 흙돼지농장방문
16:30-18:30	빈집꾸미기1 (토우인형만들기)	빈집 허지현	찰흙을 가지고 빈집을 꾸밀 토우인형을 함께 만들어 봄
18:30-20:00	석식 지리산하늘밥먹기	마을회관 진행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재교육을 진행
20:00-21:00	야방놀이 강령탈춤배워보기	마을뒷동산 한병재외 3인	우리의 탈춤 문화와 탈춤을 직접 배워본다.
21:00	취침준비	취침	

시간	구분	장소 및 진행	주요진행방법
둘째날(5월 29일)			
07:00-08:00	기상 및 마을산책	마을송림일대 박훈	마을 송림의 의미 역할소개 및 마을 주변 산책
08:00-09:00	조식 지리산하늘밥먹기	마을회관 진행팀	
09:00-12:00	빈집 꾸미기2 숫대만들기	빈집 박훈	마을어귀를 지키던 숫대를 만들어 빈집을 꾸미고 나무목걸이로 각자의 이름표를 만든다.
12:00-13:00	중식 지리산하늘밥먹기	마을회관 진행팀	지리산 자락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든 하늘밥먹기
13:00-13:30	휴식	마을회관주변 진행팀	
13:30-15:00	마을 농산물소개	마을회관 이영오위원장	남원 매동마을에서 나는 농산물소개와 예약구매의 시간
15:00-15:20	안전한먹거리간식	마을회관	남원매동마을에서 자란 감자 먹기
15:20-15:30	마을 떠나기 인사	마을회관 마을원로	1박2일간 남원매동마을에서 잘 지내다 간다는 인사드리기(절하기)
15:30-17:00	전주이동 및 해산	진행팀	해산 및 행사종료

■ 활동일지 1-1

교육주제	안전한 먹거리 - 인스턴트 간식류의 색소·당도실험을 통한				
교육일시	2005.5.28	교육장소	마을정자	교육인원	45
강사	성명	정수경	연락처		
	약력	전 “애들아, 하늘밥 먹자!” 간사			
교육내용	<p>색소실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흔하게 접하는 간식류(사탕, 음료, 아이스크림 등)에 들어있는 색소를 검출하여, 털실(모사)에 염색해보았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색소들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고, 색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색소를 사용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p> <p>▪ 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냄비위에 물을 넣고 물을 넣은 조그만한 비커를 버너위에 올려 놓는다. ② 비커에 음료수, 사탕, 야채즙을 각각 넣고 색소가 나오도록 녹인다. ③ 각 비커에 식초(염매제)을 넣고 털실(모사)를 넣는다. 이때, 끓는 동안 비커속을 나무젓가락으로 잘 저어준다. ④ 털실이 염색 되면 꺼내어 찬물에 씻는다. ⑤ 천연재료와 일발사탕, 음료(화학 색소)등이 들어 있는 색소에 대해서 비교이야기 해본다. <p>당도실험은 음료를 중심으로 당도계를 통해 당도의 수치를 측정하여, 각설탕으로 환원하여 한 음료수에 몇 개의 각설탕이 녹아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음료수 한 병을 통해 들어오는 당이 우리 몸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 공부해 보았다.</p>				
준비물	색소실험 - 색깔이 진한 음료, 사탕, 아이스크림, 과일, 버너, 비커, 막대, 털실(모사), 냄비, 식초 당도실험 - 여러 가지 음료, 당도계	참고자료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평가	<p>- 색소실험과 당도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p> <p>- 대체할 수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p> <p>▷ 앞으로 게임을 통하여 색소·당도실험을 함으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구재 개발이 요구됨</p>				

■ 활동일지 1-2

교육주제	농사체험(모내기)				
교육일시	2005. 5. 28	교육장소	마을앞 논	교육인원	45
강사	성명	이영오		연락처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3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위원장 • 1986. 남원매동마을 귀농 • 1986. 2 부산동아대학 졸업 • 1980~1984 부산시 공무원 재직 			
교육내용	<p>모내기 체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소홀하게 대해온 밥(농산물)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농부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식사시간과 연계해서 지리산 하늘밥 먹기(감사하는 마음으로 남기지 않고 먹기)와 편식하지 않는 식습관을 유도하는 연계 교육에도 도움이 되었다.</p> <p>▪ 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부분의 아이들이 밥을 싫어하고, 편식과 인스턴트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에 대해 아이들 스스로가 이야기 하도록 한다. ② 아시아 각 나라의 쌀과 문화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중에서도 우리 민족에게 쌀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본다.(각국의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③ 모내기 하는 방법과 노동요를 배워본다. ④ 직접 논에 들어가서 앞서 배운 노동요에 맞춰 모내기를 진행한다. ⑤ 모내기를 해보고 난 이후 쌀에 대한 고마움과 농부님들이 가꾸어주신 농산물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다 함께 이야기 해본다. 				
준비물	모내기 할 논, 모, 못줄		참고자료	-쌀(최선호 지음) -아시아의쌀과문화(나경수 옮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의 쌀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우리 민족의 쌀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 모내기체험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농부님의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는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안전한 우리 먹거리를 많이 먹도록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활동일지 1-3

교육주제	도우인형만들기				
교육일시	2005.5.28	교육장소	마을빈집	교육인원	45
강사	성명	허지현		연락처	
	약력	2004.9~현재 전북생명의숲 상근활동가 2005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교육내용	<p>어렸을적 누구나 가지고 놀던 찰흙을 이용해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가족의 상상력과 정성이 담긴 작품 발표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만든 작품은 매동마을 빈집 곳곳을 꾸밀 수 있도록 전시한다.</p> <p>자연 재료인 흙을 만지고 놀면서 흙은 더러운 것이 아닌 자연의 일부임을 알게 하고 자연과 친해지게 한다.</p> <p>■ 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별로 어떤 작품을 만들지 이야기 한다. (우리가족얼굴, 공룡가족만들기, 상상속의 동물만들기 등..) ② 찰흙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나눈다. ③ 찰흙을 치대어 부드럽게 만든다. ④ 가족회의에서 나온 토우인형을 만들고 꾸민다. ④ 가족별로 만든 토우인형 가지고 나와서 작품설명한다. ⑤ 작품을 빈집 곳곳에 전시한다. 				
준비물	찰흙, 주걱, 빈집주면의 나뭇가지, 나뭇잎, 그릇, 물 등		참고자료		
평가	<p>- 부모님과 아이들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만들어 봄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동의 작업을 통해서 가족의 유대를 높이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p> <p>- 작품들을 매동마을의 빈집 곳곳에 전시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빈집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이끌어 냈다.</p> <p>▷ 겨울동안 눈과 비로 인하여 가마가 많은 부분 손실 되어서 처음 의도한 토우인형 굽기를 진행하지 못하였다.(추후 가마의 보수의 요구됨)</p>				

■ 활동일지 1-4

교육주제	야밤놀이 - 강령탈춤배우기				
교육일시	2005. 5. 28	교육장소	마을뒷동산	교육인원	45
강사	성명	한병재	연락처		
	약력	전북지역 초,중,고교 탈춤강습 강령탈춤 다수 공연			
교육내용	<p>강령탈춤(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p> <p>우리 탈춤의 종류와 각 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탈을 쓰는 방법과 탈춤의 기본동작을 배워보고 탈춤을 춰보면서 탈춤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p> <p>▪ 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탈춤의 종류와 각 탈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오늘 배워볼 강령 탈춤이야기) ② 강령탈춤의 기본동작을 배운다. (불림, 외사위, 겹사위, 엇사위, 배운 동작 연결하기) ③ 실제 탈 쓰는 법을 배워보고 탈을 쓰고 앞전에 배운 강령탈춤을 춰본다. ④ 강령탈춤 중 사자춤 공연 관람하기 				
준비물	강령탈춤 탈, 한삼		참고자료		
평가	<p>- 탈을 쓰는 법과 강령탈춤의 동작을 배워봄으로써 우리의 탈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마련하였다.</p> <p>- 마을뒷동산이라는 반 평지로서 강령탈춤을 배우기에 장소적으로 불편성이 많았다.(사자춤을 추기에 마을뒷동산은 평지가 아니고 어두워서 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하였다.)</p> <p>- 연령대가 다양하여 진행자가 이야기의 초점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연령대가 다양하여 탈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소 산만한 점이 있었으나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대체적으로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듯 하였다.)</p>				

■ 활동일지 1-5

교육주제	숫대만들기				
교육일시	2005. 5. 29	교육장소	마을빈집	교육인원	45
강사	성명	박훈		연락처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8~ 전북생명의숲 사무국장 • 2000.1~ 전북의제21 사무차장 			
교육내용	<p>마을공동체를 지키던 숫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숫대를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가정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또 가족별로 나와 만들어진 숫대와 각 가정의 소원을 비는 시간을 가진다.</p> <p>▪ 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숫대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② 숫대를 제작하는 방법과 안전사항을 전달한다. ③ 톱으로 숫대받침이 될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④ 드릴로 숫대받침에 숫대를 세울 구멍을 낸다. ⑤ 준비한 나뭇가지를 이용해 숫대를 만든다. ⑥ 숫대받침에 가족의 소원 등을 적어 꾸민다. ⑦ 만들어진 숫대를 준비된 숫대받침의 구멍에 끼운다. ⑧ 가족별로 나와 만들어진 숫대와 가족의 소원을 발표 한다. 				
준비물	나무, 조각칼, 사포, 톱, 드릴		참고자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를 이용하여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숫대를 만들며, 가족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며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였다. - 너무 어린 아이들의 경우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서 주로 어른들이 만들고, 아이들은 숫대 꾸미기와 끼우기와 숫대 받침을 꾸미는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 활동사진

	
<p>이영오 위원장님으로부터 마을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소개 받는중</p>	<p>당도계를 통해서 음료수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실험중</p>
	
<p>논에 들어가서 직접 모내기 체험 중</p>	<p>염소 동산에서 염소들과 즐겁게 놀기</p>
	
<p>모래를 이용해서 흙 놀이</p>	<p>친환경 농법으로 키우는 지리산 흙돼지 구경</p>
	
<p>빈지에서 토우 인형만들기</p>	<p>내가 만든 토우인형 멋지죠!</p>

	
<p>선생님으로부터 각시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듣는중</p>	<p>탈춤의 기본동작 배우기</p>
	
<p>강령탈춤 중 사자춤 공연 관람</p>	<p>나무판에 보내는 편지쓰기</p>
	
<p>예쁜 나무 목걸이 만들기</p>	<p>가족이 힘을 합쳐 만든 솟대</p>
	
<p>마을 떠나기전 인사와 농산물 소개시간</p>	<p>전체참가자 사진촬영</p>

- 2005년 6월 25일(토) ~ 26일(일)

시간	구분	장소/진행	주요진행방법
첫째날(6월 25일)			
09:30	출발준비 및 출발	도2청사앞 진행팀	참가자확인/일정표 배부
09:30-11:00	버스이동	차내 진행팀	일정소개, 안전사항전달, 진행팀 소개, 참가자소개
11:00-11:30	어르신께 인사드리기	마을회관 마을이장	마을어르신께 인사드리기(절하 는법 배우기)와 마을의 유래 이야 기 듣기
11:30-12:00	안전한먹거리교육 색소실험	마을회관 강소영	색소실험을 통해서 평소 아이들이 즐거먹는 과자류에 색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와 우리몸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12:00-13:00	중식 지리산하늘밥먹기	마을회관 강소영, 진행팀	지리산 자락에 나는 농산물로 만 든 하늘밥먹기, 아이상과 어른상 구분으로 편식하지 않도록 유도함
13:00-13:30	휴식	마을회관주변 진행팀	마을주변 산책
13:30-15:30	빈집꾸미기1 (토우인형만들기)	빈집 허지현	찰흙을 가지고 빈집을 꾸밀 토우 인형을 함께 만들어 봄
15:30-16:30	마을송림에서놀이	영소동산 진행팀	마을송림에서 솔방울 전쟁놀이와 영소 풀주기
16:30-19:30	농사체험 (감자캐기)	마을앞논, 축사 이영오위원장	감자캐기를 통해서 농부님의 수확 의 기쁨을 느끼고 우리농산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운다.
19:30-20:30	석식 지리산하늘밥먹기	마을회관 진행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재교육을 진행
20:30-21:30	야밤놀이-가족에게 보내는편지	마을회관 박상익, 이중훈	오늘 하루동안의 캠프를 회상하고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가족의 대화의 시간 유도한다
21:00	취침준비	취침	

시간	구분	장소 및 진행	주요진행방법
둘째날(6월 26일)			
07:00-08:00	기상 및 마을산책	마을송림일대 박훈	마을 송림의 의미 역할소개 및 마을 주변 산책
08:00-09:00	조식 지리산하늘밥먹기	마을회관 진행팀	
09:00-12:00	빈집 꾸미기2 숫대만들기	빈집 박성례	마을어귀를 지키던 숫대를 만들어 빈집을 꾸미고 나무목걸이로 각자의 이름표를 만든다.
12:00-13:00	중식 지리산하늘밥먹기	마을회관 진행팀	지리산 자락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든 하늘밥먹기
13:00-13:30	휴식	마을회관주변 진행팀	
13:30-15:00	마을 농산물소개	마을회관 이영오위원장	남원 매동마을에서 나는 농산물소개와 예약구매의 시간
15:00-15:20	안전한먹거리간식	마을회관	전날에 직접 수확한 감자 삶아 먹기
15:20-15:30	마을 떠나기 인사	마을회관 마을원로	1박2일간 남원매동마을에서 잘 지내다 간다는 인사드리기(절하기)
15:30-17:00	전주이동 및 해산	진행팀	해산 및 행사종료

■ 활동일지 2-1

교육주제	안전한 먹거리 - 인스턴트 간식류의 색소·당도실험을 통해 배우기			
교육일시	2005. 6. 25	교육장소	마을정자	교육인원 35
강사	성명	강소영	연락처	
	약력	2001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2002~현재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 간사 2004~현재 “애들아 하늘밥먹자” 사무국장 2005년~현재 전북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교육내용	<p>실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예쁜 색이 나는 간식류에 어떤 색소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며, 천연색소와 인공색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과자, 음료, 사탕 등 간식거리에 얼마나 많은 색소가 들어있는지 인식하고, 그러한 색소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여 부모와 아이들에게 색소가 들어있는 식품을 선별하여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p> <p>▪ 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음료수, 사탕(색깔별로 10알), 아이스크림을 녹인다. ② 과일과 야채의 즙을 낸다. ③ 각각의 재료들을 비이커에 넣고, 식용식초 10ml를 넣는다. 이 때 탈실(모사) 1g를 같이 넣는다. ④ 준비된 중탕냄비에 재료가 들어간 비커들을 넣는다. 이때, 끓는 동안 나무젓가락으로 잘 저어준다. ⑤ 15분 동안 위의 비이커들을 관찰한다. ⑥ 시간이 지난 후 탈실을 꺼내 찬물에 씻는다. ⑦ 탈실의 색을 관찰한다. 			
준비물	시판 음료수 3종, 아이스크림 3종, 사탕류 1종, 과일과 야채류, 증류수, 식초, 강판, 비커(유리컵), 메스실린더(아기젓병), 나무젓가락, 중탕냄비, 휴대용렌지, 흰 탈실(모사), 큰 그릇	참고자료	-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 먹지마 위험해 (일본자손기금)	
평가	- 자연상태를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만들어낸 먹을거리가 환경과 자연의 순환 고리를 깨뜨리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의함. - 어른과 아이들 모두 진지하게 강연을 청취하였으며 생태계를 보전하는 활동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공감함. - 식생활과 생활습관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을 함께 토론이 이루어짐.			

■ 활동일지 2-2

교육주제	토우인형만들기				
교육일시	2005. 6. 25	교육장소	마을빈집	교육인원	35
강사	성명	허지현		연락처	
	약력	2004.9~현재 전북생명의숲 상근활동가 2005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교육내용	<p>찰흙으로 토우인형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 정성이 담긴 작품들로 매동마을의 빈집을 꾸미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고, 흙을 만짐으로써 흙은 더러운 것이 아닌 자연의 일부임을 알게 하고 자연과 친해지게 한다. 또 발표를 통해 아이들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p> <p>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별로 만들고자 하는 토우인형에 대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② 찰흙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후 치대어 부드럽게 만든다. ③ 원하는 모양을 토우인형을 제작한다. ④ 다 만든 후 가족별로 나와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친구들 작품과 비교해본다. ⑤ 작품을 빈집에 전시한다. 				
준비물	찰흙, 주걱, 가마, 그릇, 물, 진흙			참고자료	
평가	<p>- 찰흙으로 작품을 만들며, 우리도 자연의 일부임을 이야기 하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 정성이 담긴 작품을 만들었다.</p> <p>- 부모와 아이들이 작품을 만들며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였다.</p> <p>-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로 매동마을의 빈집을 꾸몄다는 사실이 아이들을 뿌듯하게 만들었다.</p>				

■ 활동일지 2-3

교육주제	농사체험(감자캐기)			
교육일시	2005. 6. 25	교육장소	감자밭	교육인원 35
강사	성명	이영오	연락처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3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위원장 • 1986. 남원매동마을 귀농 • 1986. 2 부산동아대학 졸업 • 1980~1984 부산시 공무원 재직 		
교육내용	<p>직접 감자 캐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수확의 기쁨과 함께 우리 농부님들이 이 감자를 수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 지와 하늘님(자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과 외국농산물과 어떻게 다른지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선별하여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p> <p>▪ 진행방법</p> <p>① 감자캐기 전에 우리 농산물은 흙과 물, 햇빛 등 자연이 공존하여, 만들어주는 하늘농산물임을 이야기한다.</p> <p>② 감자캐기 요령을 설명한다. (감자이랑 위에 감자줄기를 제거한 후 비닐을 제거한 다음 호미를 가지고 살살 흙을 파헤쳐서 감자를 수확한다.)</p> <p>③ 실제로 감자를 직접 수확해본다.</p>			
준비물	호미, 바구니	참고자료		
평가	<p>- 감자를 직접 수확해 봄으로써 농부님들의 수확의 기쁨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p> <p>- 자신이 캔 감자를 직접 써서 먹어봄으로써 그동안 소홀히해온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식습관을 유도할 수 있었다.</p> <p>▷ 농사체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과정만을 해봤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예를 들어서 감자를 심고 감자밭에 제초를 하고 수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체험자로 하여금 농산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농사체험의 한 단계만이 아니 모든 단계를 체험하게 함으로 소중함을 일깨울수 있을 것이다.)</p>			

■ 활동일지 2-4









교육주제	야밤놀이				
교육일시	2005. 6. 25	교육장소	마을빈집	교육인원	35
강사	성명	박상익, 이중훈		연락처	
	약력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박상익)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이중훈)			
교육내용	<p>평소 주말에 가족들 모두가 제 각기 시간을 갖는데 반해 이번 캠프에서는 최대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활동들을 이야기 해보면서 가족간에 대화의 시간의 유도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과 오늘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p> <p>▪ 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별로 모여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가족간의 대화의 시간을 유도한다.) ② 가족에게 편지 쓰는 시간을 갖는다. ③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쓴 편지를 읽는 시간을 가진다. ④ 사무국에서 한달 후에 오늘 쓴 편지를 발송한다. 				
준비물	편지지, 우표, 편지봉투, 볼펜			참고자료	
평가	<p>- 감자캐기의 진행이 늦어짐으로써 야밤놀이 시간이 다소 늦어져 시간 조절이 이루어졌다.(실제 진행상에서 참가자들의 흥미가 높아서 진행시간의 변경이 이루어졌다.)</p> <p>- 캠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보며 가족간의 시간을 배려함으로써 가족 대화의 시간을 유도하였다.</p> <p>- 한달 후 편지를 받아보고 캠프에서 기억을 떠올리며 가족간의 유대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한다.</p>				

■ 활동일지 2-5

교육주제	숫대만들기			
교육일시	2005. 6. 26	교육장소	마을빈집	교육인원 35
강사	성명	박성례	연락처	
	약력	1999~2001 생명문화 교육연대 간사 2003~2005 정읍의제21추진협의회 간사 2005. 6~현재 전북생명의숲 사업지원팀		
교육내용	<p>마을공동체를 지켜주고, 천상과 지상의 매계체 역할을 하였던 숫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숫대를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가정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가족별로 나와 각 가정의 소원을 빌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p> <p>▪ 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숫대에 대해 설명하고, 만드는 방법과 안전사항을 전달한다. ② 톱으로 숫대받침이 될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③ 드릴로 숫대받침에 숫대를 세울 구멍을 낸다. ④ 준비한 나뭇가지를 이용해 숫대를 만든다. ⑤ 숫대받침에 가족의 소원 등을 적어 꾸민다. ⑥ 만들어진 숫대를 준비된 숫대받침의 구멍에 끼운다. ⑦ 가족단위로 나와 만들어진 숫대를 발표한다. 			
준비물	나무, 조각칼, 사포, 톱, 드릴	참고자료	새가 있기에 살아있는 신화의 공간-이형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신이자 천상과의 매계체 역할을 했던 숫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네 전통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숫대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만듦으로써 가족에 대한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 가족별로 나와 만들어진 숫대와 가족의 소원을 이야기하며, 가족간의 융화감을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되었다. 			

■ 활동사진

	
<p>이영오 위원장님으로부터 마을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소개 받는중</p>	<p>우리가 좋아하는 음료수에는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가는지 실험중</p>
	
<p>토우인형을 만드는 중</p>	<p>찰흙을 이용해 만든 상상속의 동물들</p>
	
<p>염소동산에서 솔방울 전쟁놀이중</p>	<p>선생님과 아이들로 나뉘어 닭싸움 하기</p>
	
<p>감자캐기위해서 감자의 지상 줄기를 걷어내고 있는중</p>	<p>온가족이 감자 캐기</p>

	
<p>호미로 감자캐기</p>	<p>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쓰기</p>
	
<p>마을 주변 둘러보기 및 마을 송림이야기</p>	<p>직접 만들어본 솟대</p>
	
<p>어떤 솟대를 만들어 볼까?</p>	<p>아빠랑 만든 솟대들고 사진</p>
	
<p>농산물 소개시간</p>	<p>마을 떠나기전에 마을 어르신께 인사</p>

- 2005년 8월 27일(토) ~ 28일(일)

시간	구분	장소/진행	주요진행방법
첫째날(8월 27일)			
09:30	출발준비 및 출발	도2청사앞 진행팀	참가자확인/일정표 배부
09:30-11:00	버스이동	차내 진행팀	일정소개, 안전사항전달, 진행팀 소개, 참가자소개
11:00-11:30	어르신께 인사드리기	마을회관 마을이장	마을어르신께 인사드리기(절하 는법 배우기)와 마을의 유래 이야 기 듣기
11:30-12:00	안전한먹거리교육 색소실험	마을회관 강소영	색소실험을 통해서 평소 아이들이 즐거먹는 과자류에 색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와 우리몸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12:00-13:00	중식 지리산하늘밥먹기	마을회관 강소영, 진행팀	지리산 자락에 나는 농산물로 만 든 하늘밥먹기, 아이상과 어른상 구분으로 편식하지 않도록 유도함
13:00-13:30	휴식	마을회관주변 진행팀	마을주변 산책
13:30-15:30	빈집꾸미기1 (토우인형만들기)	빈집 박성례	찰흙을 가지고 빈집을 꾸밀 토우 인형을 함께 만들어 봄
15:30-18:00	농사체험 (고추따기)	마을앞논, 축사 이영오위원장	고추따기를 통해서 농부님의 수확 의 기쁨을 느끼고 우리농산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운다.
18:00-19:00	석식 지리산하늘밥먹기	마을회관 진행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재교육을 진행
19:00-21:00	야밤놀이 판소리, 남원산내면 일대 옛이야기	마을회관 김용근	춘향가의 판소리 한대목을 배워보 고 남원산내면 일대의 마을 옛이 야기를 배운다.
21:00	취침준비	취침	

시간	구분	장소 및 진행	주요진행방법
둘째날(8월 28일)			
07:00-08:00	기상 및 마을산책	마을송림일대 박훈	마을 송림의 의미 역할소개 및 마을 주변 산책
08:00-09:00	조식 지리산하늘밥먹기	마을회관 진행팀	
09:00-12:00	빈집 꾸미기2 숫대만들기	빈집 박성례	마을어귀를 지키던 숫대를 만들어 빈집을 꾸미고 나무목걸이로 각자의 이름표를 만든다.
12:00-13:00	중식 지리산하늘밥먹기	마을회관 진행팀	지리산 자락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든 하늘밥먹기
13:00-13:30	휴식	마을회관주변 진행팀	
13:30-15:00	마을 농산물소개	마을회관 이영오위원장	남원 매동마을에서 나는 농산물소개와 예약구매의 시간
15:00-15:20	마을 떠나기 인사	마을회관 마을원로	1박2일간 남원매동마을에서 잘 지내다 간다는 인사드리기(절하기)
15:20-17:00	전주이동 및 해산	진행팀	해산 및 행사종료

■ 활동일지 3-1

교육주제	안전한 먹거리 - 인스턴트 간식류의 색소실험을 통한				
교육일시	2005. 8. 27.	교육장소	마을정자	교육인원	42
강사	성명	강소영		연락처	
	약력	2001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2002~현재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 간사 2004~현재 “애들아 하늘밥먹자” 사무국장 2005년~현재 전북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교육내용	실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예쁜 색이 나는 간식류에 어떤 색소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며, 천연색소와 인공색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과자, 음료, 사탕 등 간식거리에 얼마나 많은 색소가 들어있는지 인식하고, 그러한 색소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여 부모와 아이들에게 색소가 들어있는 식품을 선별하여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법 ① 음료수, 사탕(색깔별로 10알), 아이스크림을 녹인다. ② 과일과 야채의 즙을 낸다. ③ 각각의 재료들을 비커에 넣고, 식용식초 10ml를 넣는다. 이 때 탈실(모사) 1g를 같이 넣는다. ④ 준비된 중탕냄비에 재료가 들어간 비이커들을 넣는다. 이때, 끓는 동안 나무젓가락으로 잘 저어준다. ⑤ 15분 동안 위의 비이커들을 관찰한다. ⑥ 시간이 지난 후 탈실을 꺼내 찬물에 씻는다. ⑦ 탈실의 색을 관찰한다. 				
준비물	시판 음료수 3종, 아이스크림 3종, 사탕류 1종, 과일과 야채류, 증류수, 식초, 강판, 비커(유리컵), 메스실린더(아기젓병), 나무젓가락, 중탕냄비, 휴대용렌지, 흰 탈실(모사), 큰 그릇		참고자료	-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 먹지마 위험해 (일본자손기금)	
평가	- 자연상태를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만들어낸 먹을거리가 환경과 자연의 순환 고리를 깨뜨리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의함. - 어른과 아이들 모두 진지하게 강연을 청취하였으며 생태계를 보전하는 활동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공감함. - 식생활과 생활습관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을 함께 토론이 이루어짐.				

■ 활동일지 3-2

교육주제	농사체험(고추따기)				
교육일시	2005. 8. 27	교육장소	고추밭	교육인원	42
강사	성명	이영오		연락처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3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위원장 • 1986. 남원매동마을 귀농 • 1986. 2 부산동아대학 졸업 • 1980~1984 부산시 공무원 재직 			
교육내용	<p>직접 고추따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수확의 기쁨과 함께 우리 농부님들이 이 고추를 수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와 하늘님(자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서 하늘님이 주신 우리 농산물이 외국농산물과 어떻게 다른지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선별하여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p> <p>▪ 진행방법</p> <p>① 고추따기 전에 우리 농산물은 누가 만들어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우리 농산물은 자연의 흙, 물, 햇빛이 만들어 주는 하늘농산물이다.)</p> <p>② 고추따기 요령을 설명한다. (붉은색으로 물든 고추를 선택하며, 고추대를 잡고 휘어진 줄기의 반대편으로 똑하고 따다)</p> <p>③ 실제로 고추를 직접 수확 해 본다.</p> <p>④ 농산물을 수확해보고 나서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p>				
준비물	비료푸대, 일반 푸대		참고자료		
평가	<p>- 고추가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흙, 물, 햇빛)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연요소가 식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우리 농산물과 외국 농산물의 재배의 차이와 우수성을 알아볼 수 있다.)</p> <p>- 고추따기를 직접 수확해 봄으로써 농부님들의 수확의 기쁨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p>				

■ 활동일지 3-3

교육주제	토우인형 만들기				
교육일시	2005. 8. 27	교육장소	마을빈집	교육인원	42
강사	성명	박성례		연락처	
	약력	1999~2001 생명문화 교육연대 간사 2003~2005 정읍의제21추진협의회 간사 2005. 6~현재 전북생명의숲 사업지원팀			
교육내용	<p>찰흙으로 토우인형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 정성이 담긴 작품들을 만들고, 만들어진 작품들로 매동마을의 빈집을 꾸민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고, 흙을 만짐으로써 흙은 더러운 것이 아닌 자연의 일부임을 알게 하고 자연과 친해지게 한다.</p> <p>또 발표를 통해 아이들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p> <p>▪ 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찰흙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나눠준다. ② 찰흙을 치대어 부드럽게 만든다. ③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꾸민다. ④ 준비된 가마에 토우인형을 넣고, 불을 조절해가면 굽는다. (처음 1시간은 약한 불로, 그 다음 2시간은 센 불로, 다시 1시간은 약한 불로 굽는다.) ⑤ 토우인형이 식으면 꺼내어 작품발표를 하고, 빈집에 전시한다. 				
준비물	찰흙, 주걱, 그릇, 물, 진흙 가마, 시계, 장작,			참고자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찰흙으로 작품을 만들며, 우리도 자연의 일부임을 이야기 하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 정성이 담긴 작품을 만들었다. - 부모와 아이들이 작품을 만들며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였다. -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로 매동마을의 빈집을 꾸몄다는 사실이 아이들을 뿌듯하게 만들었다. 				

■ 활동일지 3-4

교육주제	야밤놀이				
교육일시	2005. 8. 27	교육장소	마을정자	교육인원	42
강사	성명	김용근		연락처	
	약력	현재 남원시 산내면사무소 근무중			
교육내용	<p>춘향가의 무대인 남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판소리에 대해서 배워본다. 매동마을주변 마을의 문화재나 마을 이야기를 통해서 마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p> <p>▪ 진행방법</p> <p>① 남원과 관련된 전래동화는 무엇이 있을까? 이야기 해본다. ② 판소리춘향전의 판소리 한 대목 배우기 ③ 남원 주변의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 듣는다. (매동마을 유래, 주변의 실상사, 지리산 이야기 등) ④ 판소리와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진행</p>				
준비물	북, 북채		참고자료		
평가	<p>- 마을주변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판소리를 직접 배워보고 직접 불러 봄으로써, 우리 판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p>				

■ 활동일지 3-5

교육주제	숫대만들기				
교육일시	2005. 8. 28	교육장소	마을빈집	교육인원	42
강사	성명	허지현		연락처	
	약력	2004.9~현재 전북생명의숲 상근활동가 2005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교육내용	<p>우리 가정을 지켜줄 숫대를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가정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가족별로 나와 각 가정의 소원을 받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p> <p>▪ 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숫대에 대해 설명하고, 만드는 방법과 안전사항을 전달한다. ② 톱으로 숫대받침이 될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③ 드릴로 숫대받침에 숫대를 세울 구멍을 낸다. ④ 준비한 나뭇가지를 이용해 숫대를 만든다. ⑤ 숫대받침에 가족의 소원 등을 적어 꾸민다. ⑥ 만들어진 숫대를 준비된 숫대받침의 구멍에 끼운다. ⑦ 가족단위로 나와 만들어진 숫대를 발표한다. 				
준비물	나무, 조각칼, 사포, 톱, 드릴, 목공풀, 싸인펜			참고자료	
평가	<p>- 나무를 이용하여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숫대를 만들며, 가족에 대한 의미를 되새긴다.</p> <p>-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며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였다.</p>				

■ 활동사진

	
<p>인사예절 배우기</p>	<p>마을 어르신께 인사드리기</p>
	
<p>마을이장님으로부터 마을 소개 받기</p>	<p>색소 실험을 통해서 염색된 털실</p>
	
<p>캔디에서 나온 색소로 염색된 털실들 (물로 빨았어도 색이 선명하다)</p>	<p>지리한 하늘밥먹기 (아이상과 어른상구분)</p>
	
<p>도우 인형 만들기</p>	<p>아빠와 함께 나무 의자 타고 놀기</p>

	
<p>작품 발표하기</p>	<p>고추따기 체험 중</p>
	
<p>이만큼이나 고추 따어요</p>	<p>고추따기</p>
	
<p>고추 딴 후 먹는 새참 정말 맛있어요</p>	<p>관소리의 춘향가 한 대목 배우기</p>
	
<p>관소리와 산내면의 옛날 이야기 듣기</p>	<p>빈집으로 보물찾으러 가기전 화이팅!</p>



산길을 지나 빈집으로...

매동마을 산책과 탐방



노인회장님으로부터 목기 이야기를 드는 중

나만의 나무 목걸이 만들기



내가 만든 나무 목걸이

우리집을 지켜줄 솟대



마을 농산물 소개시간

마을 떠나기전 단체사진

- 2005년 12월 3일(토) ~ 4일(일)

시 간	구분	장소/진행	프로그램내용
첫째날(12월 3일)			
14:00-14:30	인원 확인	구도청앞 진행팀	참가자 확인/일정표 배부
14:30-16:00	버스이동	차내 진행팀	일정소개, 안전사항전달, 진행팀 소개, 참가자소개
16:00-16:20	어르신께 인사드리기	마을회관 이영오위원장	마을어르신께 인사드리기기(절하는법 배우기)와 마을의 유래 이야기 듣기
16:20-17:30	쥐불놀이 강통만들기	빈집 손성진	정월 대보름에 짚속의 쥐나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행해진 쥐불놀이의 강통을 만든다.
17:30-18:30	석식 지리산하늘밥먹기	마을회관 진행팀	지리산 자락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든 하늘밥먹기, 아이상과 어른상의 구분으로 편식하지 않도록 유도함
18:30-21:30	야밤놀이 쥐불놀이, 윷놀이	마을주변일대 박훈, 박성례	낮에 만든 쥐불놀이 강통을 이용해서 마을회관 앞의 논을 태워보며 내년 한해 풍년을 기원하고 저마다 가족마다의 소원을 빌어 본다. 간식으로 숯불을 이용해 고구마를 구워먹으며 윷놀이를 진행한다.
21:30-	취침		민박배정과 함께 하루동안 신세질 어르신께 인사드리고 취침하기

시간	구분	장소/진행	주요진행방법
둘째날(12월 4일)			
07:30-08:00	마을송림탐방	마을주변 박훈	마을주변 탐방과 마을송림 이야기 듣기
08:00-09:00	조식 지리산하늘밥먹기	마을회관 진행팀	
09:00-10:30	새끼줄 꼬기	마을회관 서정수	마을어르신으로부터 새끼줄 꼬는 법을 배워보고 새끼줄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체험해 본다. (새끼줄 줄넘기, 새끼줄 기차놀이 등..)
10:30-12:00	연만들기	마을회관 이영오	가오리를 연을 만들고 각자의 소 원을 담아 날려보낸다.
12:00-13:00	중식 지리산하늘밥먹기	마을회관 진행팀	지리산하늘밥 맛있게 먹기
13:00-14:00	안전한먹거리 만들기	마을회관 허지현	집에서 즐겨먹는 간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안전한 먹거리 만 들어보기(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서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 는 인절미 만들기)
14:00-14:20	마을농산물소개 마을 떠나기 인사	마을회관 이영오위원장	남원 매동마을에서 나는 농산물 소개와 예약구매의 시간 (마을 주변에서 나는 유통란 소개와 시 식)
14:00-15:40	전주이동 및 해산		해산 및 행사종료

■ 활동일지 4-1

교육주제	쥐불놀이 강통만들기				
교육일시	2005. 12. 3	교육장소	매동마을 빈집	교육인원	37
강사	성명	손성진		연락처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 5~ 남원 매동마을 귀농 • 2002~2005.4 남원 실상사 농장공동체 활동 • 1999.7~2000.7 당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상근자 			
교육내용	<p>쥐불놀이 강통 만들기를 통해서 정월 대보름의 쥐불놀이의 의미를 이해하는 자리였다. (정월 대보름 전날 농촌에서 논밭 두렁 등의 마른 풀에 불을 놓아 모두 태우는 풍습으로, 논두렁태우기라고도 한다. 이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쥐를 잡고 들판의 마른 풀에 붙어 있는 해충의 알을 비롯한 모든 잡충(雜蟲)을 태워 없앨 뿐만 아니라 타고 남은 재가 다음 농사에 거름이 되어 곡식의 새싹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소망이 담겨 있다.)</p> <p>▪ 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쥐불놀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정월 대보름 전날 농촌에서 논밭 두렁등의 마른 풀에 불을 놓아 모두 태우는 풍습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주는 쥐나, 해충을 불태우는 민간 신앙이다.) ② 강통만들기 요령을 설명한다. (강통에 나무를 끼우고 못을 이용해서 강통 사방에 구멍을 만든다. 구멍을 많이 뚫을수록 산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불이 잘 붙는다.) ③ 강통을 직접 만들어 본다. 				
준비물	강통(분유통), 철사, 못, 망치(돌)		참고자료		
평가	<p>- 쥐불놀이 강통을 만들기를 통해서 쥐불놀이의 의미와 선조들의 민간신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민간신앙이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겨우내 짚 속의 해충의 서식처를 불태우고 타고 남은 재는 거름으로 이용된다)</p>				

■ 활동일지 4-2

교육주제	야밤놀이				
교육일시	2005. 12. 3	교육장소	마을회관 및 공터	교육인원	37
강사	성명	박훈, 박성례		연락처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 훈 • 2004.8~ 전북생명의숲 사무국장 • 2000.1~ 전북의제21 사무차장 • 박성례 • 2005.6 ~ 전북생명의숲 상근자 • 2004.2~2005.3 정읍의제21 상근자 			
교육내용	<p>전통 민속놀이인 쥐불놀이와 윷놀이를 통해, 우리네 부모님들이 어떤 놀이를 했었는지, 그 놀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고,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세대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p> <p>▪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통 민속놀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하고, 놀이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설명한다. ② 그 중의 한가지인 쥐불놀이를 하는 이유(한 해 농사를 준비하며, 겨울에 알을 까놓은 해충을 죽이기 위함)를 설명한다. ③ 강통에 준비해 둔 나뭇가지들과 솔가지를 넣고 불을 붙이고, 손잡이를 돌려 불을 살린다. ④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편을 나누고 윷놀이를 한다. 				
준비물	강통, 나뭇가지 및 솔가지, 윷, 윷판		참고자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쥐불놀이를 하면서, 전통 민속놀이를 배우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아이들 보다 어른들이 추억을 생각하며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컴퓨터 게임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전통 민속놀이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네 전통놀이에도 즐겁고 의미있는 놀이들이 많이 있었음을 소개한다. - 윷놀이를 통해 일을 운용하는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 				

■ 활동일지 4-3

교육주제	새끼꼬기				
교육일시	2005. 12. 4	교육장소	마을회관	교육인원	37
강사	성명	장정식		연락처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매동마을에서 농사 • 1943년 매동마을 출생 			
교육내용	<p>짚을 이용해서 새끼꼬기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만든 새끼줄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 가지 놀이를 구상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p> <p>▪ 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리 선조들은 짚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었을까? 이야기 해본다. (짚신, 초가집, 새끼줄, 멍석, 바구니 등...) ② 짚을 이용해서 새끼줄 꼬는 법을 배워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움큼의 짚을 잡는다. - 짚의 맨 밑쪽을 잡고 쪽뽕이 짚들을 훑어서 정돈한다. - 정돈된 짚을 일정한 양으로 나누어서 양손에 쥘다. - 짚의 끝부분을 위로하고 손바닥안에서 비비듯 새끼를 꼰다. - 원하는 길이만큼 짚을 이어가며 새끼를 꼬아간다. ③ 실제로 짚을 꼬아서 새끼줄을 만들어 본다. ④ 만든 새끼줄을 이용해서 줄넘기, 기차놀이 등 을 한다 				
준비물	짚단			참고자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선조들이 짚을 활용해 만든 도구들 속에서 우리 조상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게임기 등이 아니어도 자연물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즐거운 놀이를 응용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실제로도 아이들이 새끼줄을 이용해서 다양한 놀이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고 규칙을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놀이들을 만들어 나갔다. 				

■ 활동일지 4-4

교육주제	연만들기				
교육일시	2005. 12. 3	교육장소	마을회관	교육인원	37
강사	성명	이영오		연락처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3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위원장 • 1986. 남원매동마을 귀농 • 1986. 2 부산동아대학 졸업 • 1980~1984 부산시 공무원 재직 			
교육내용	<p>TV, 컴퓨터, 게임기 등에 익숙해져서 수동적으로 밖에 놀지 못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스스로 제작한 놀잇감으로, 규격화되지 않은 자연 공간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p> <p>연만들기기를 통해서 전통 민속놀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준다.</p> <p>▪ 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의 역사와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한다. ② 오늘 만들 가오리연의 특징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된 창호지를 정사각형으로 자른다. - 대살에 밥풀을 묻혀서 창호지에 대각선으로 붙이고, 대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종이로 다시 한번 붙여준다. - 대살이 붙여진 창호지를 위로 오게하고 나머지 대살을 둥글게 휘어서 붙이고 양 옆을 종이로 다시 붙여준다. - 대살이 교차하는 부분에 송곳으로 뚫고 실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묶는다. - 둥그렇게 휘어진 대살 부분을 실을 이용해 휘도록 묶어주고, 대각선으로 놓인 대살을 실로 연결해서 2/3지점에 끈을 묶는다. ③ 실제로 가오리 연을 만들어 보고 각자의 소원을 연에 적어본다. ④ 다 만든 연을 각자의 소원을 담아 바람에 날린다. 				
준비물	창호지, 대나무, 칼, 가위, 밥(풀), 그릇, 실, 송곳			참고자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연을 만들어 날려 봄으로써 부모님은 동심속으로 아이들에게는 부모님들과의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다. - 기성 제품의 놀이기구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에게 연만들기를 통해서, 구성·제작·놀이·평가까지 스스로 해야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품화된 놀잇감과 다른 창조성과 주체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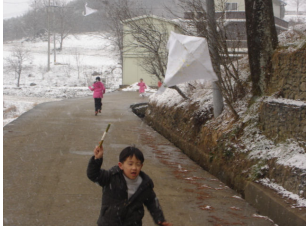




■ 활동일지 4-5

교육주제	안전한 먹거리 만들기(인절미만들기)				
교육일시	2005.12.4.	교육장소	마을회관	교육인원	37
강사	성명	허지현		연락처	
	약력	2004.9~현재 전북생명의숲 상근활동가 2005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교육내용	<p>우리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음료, 사탕 등에 얼마나 많은 색소와 설탕이 들어있는지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이후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만들기를 통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손쉽게 안전한 먹거리 만들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p> <p>▪ 진행방법</p> <p>① 안전한 먹거리 교육의 일환으로 색소와 당도가 많은 식품을 먹으면 우리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본다. (참가자 전원이 색소 당도 실험을 해본 아이들을 전제로 교육이루어 짐)</p> <p>② 안전한 먹거리에는 무엇이 있으면 어떤 음식을 골라야 하는지 이야기 발표를 한다.</p> <p>③ 인절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다. - 불린 찹쌀을 방앗간에서 뺏는다(불린 찹쌀을 뺏지 않고 절굴을 이용해서 찧을수도 있다.) - 떡시루에 넣고 익힌다. - 쟁반에 콩고물을 간후 그 위에 익힌 찹쌀을 올린다. - 찹쌀에 콩고물을 묻혀서 넓게 편후, 접시(칼)을 이용해서 먹기 좋게 자른다.</p> <p>④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 본다.</p>				
준비물	찹쌀, 콩고물, 접시, 쟁반			참고자료	-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평가	<p>-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p> <p>-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부모님이 직접 간식을 만드는 기회를 가정에서도 손쉽게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p>				

■ 활동사진

	
<p>쥐불놀이 깡통 만드는법 배우기</p>	<p>직접 깡통 만들어 보기</p>
	
<p>맛있는 지리산 하늘밥 먹기</p>	<p>가족 소원 빌기</p>
	
<p>쥐불놀이 깡통 돌리기 설명중</p>	<p>쥐불놀이 깡통에 불 붙이기</p>
	
<p>쥐불놀이 깡통 돌리기</p>	<p>윷놀이</p>

	
<p>매동마을 산책하기</p>	<p>눈 쌓인 매동마을 설경 구경하기</p>
	
<p>장정기 어른으로부터 새끼꼬는 방법을 배우는중</p>	<p>새끼 꼬아보기</p>
	
<p>짚으로 만든 새끼로 머리끈으로 만들어 봤어요!</p>	<p>길게 끈 새끼줄을 이용해서 단체 줄넘기</p>
	
<p>짧은 줄로 혼자서 줄넘기 하기</p>	<p>포박 놀이중</p>

	
<p>이영오 위원장님이 연만들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 중</p>	<p>연만들기에 열심히인 학생</p>
	
<p>연에 예쁜 소원 적어 넣기</p>	<p>열심히 열날리기(연잡고 뛰기)</p>
	
<p>진짜 열날리기</p>	<p>마을 농산물 소개시간중 유정란 계란 맛보기</p>
	
<p>인절미 만들기</p>	<p>안전한 먹거리 만들기</p>

5) 평 가

기획분야

▷잘된 점

마을 지도자들과 프로그램 초기분야부터 내용을 공유하여, 마을내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프로그램에 반영

마을내 시설자원외에 경관자원, 농사거리, 유휴공간인 동산등을 교육공간이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

▷부족한 점

마을지도자 외에도 마을 주민들과의 기획공유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음
농사체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부족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함

진행

▷잘된 점

안전사고 없이 4번의 캠프가 무사히 정리된 점
참가자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당한 휴식과 산책, 놀이등을 병행하여 진행
진행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진행수준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하여 전체적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임
마을 주민들이 진행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진행방법을 익힐 수 있는 계기 마련

▷부족한 점

약간 느슨한 진행으로 지루해 하는 참가자들도 일부 있었음
저녁 식사 이후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였음.(조명 등)
저녁 취침 시간이후는 민박집으로 인원이 분산되어 전체적인 통제가 어려움

홍보

▷잘된 점

각종 언론매체에 프로그램 내용과 취지가 홍보

▷부족한 점

참가자모집 홍보의 방법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함
2-3번 중복하여 참가하는 분들이 많아 홍보의 범위를 작게 잡고 접근한 점도 부족

지역주민

▷잘됨 점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비용(식대,민박)이 마을의 수입으로 작용하고, 농산물 판매등도 소규모 이루어져 주민들이 행사 자체를 크게 반기고 환영함

4번의 프로그램이지만 캠프 실시날에 마을에 생기가 돌고, 사람사는 마을같아 좋았다는 평

▷ 부족한 점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사업의 내용은 알고 있으나 사업에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았음
농사체험의 경우 농작물의 훼손 등을 우려하여 극도로 경계하는 성향들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마을 자체적인 자원의 보수(빈집등)에는 소극적이어서 추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총평

들어가면서

4번의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매동마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건 2005년초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그 사업의 진행방식에 주민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마을이 크게 이분되는 현상들을 보였다. 그 와중에 캠프를 진행할때 여러 이야기들이 나돌면서 사업진행속을 크게 당황케 하였다. 실제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마을 지도자들은 체험시설 건립으로 방향을 확정하고 실제 부지구입과 건물신축이 이루어져 캠프 진행내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럴수록 마을 주민들과 어른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같이 고민하고 싶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참가자들의 즐거움과 빈집캠프 활용의 필요성에 동의해주는데 큰 힘을 얻었다는 결론을 미리 전제하면서 빈집캠프 진행 4번의 결과를 평하고자 한다.

가운데 글

1. 달라지는 마을 주민들,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기획자로 나서야 한다.

초기에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마을 주민들로 구성할 때 기획팀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마을 주민들은 쉽게 나서려 하지 않아 더욱더 어려움이 많아서 초기 1-2회 진행은 외부에서 강사들을 다 데려올 수 밖에 없었다. 3,4회 캠프를 진행하기 까지 마을 어른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마을 어른들은 “내가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는데, 그 첫 테잎을 끊어주신 분이 박판용(노인회장) 였다. 마을의 목기와 관련된 강의를 한번 해보겠노라고 나서신 것이다. 남도 제일의 목기장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발동한 듯 하다. 그러나 막상 박판용 옹의 강의는 5분내에 끝을 맺었다. 그래도 우리는 존경과 신뢰의 박수를 보냈고, 참가자들도 박수를 보냈다. 60년동안의 삶을 단 5분에 그려내기에는 너무 벅차오르시는게 많은 듯 했다. 강의비를 지급받고 돌아서시는 옹의 뒷모습에서 작은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3-4회 계속 마을 주민들이 강사로 나섰다. 비록 전문강사의 세련된 강의는 아니지만, 하나라도 더 전수하려는 열띤 모습속에서 단순한 강사비 지급의 유혹이겠지 하는 기우를 버렸다. 새끼꼬기, 연날리기, 농촌체험, 농촌안내등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라고 판단된다.

민박집을 돌아볼때마다 숙박지 선정에 많은 고민이 들었다. 좁은 공간에 텔레비전도 없고, 이불도 청결치 못해보이는 시골의 방에 그냥 참가자들을 밀어 넣었다. 동네

10가정 정도에서 4회 계속 지속적으로 민박을 실시하였다. 식사도 제공하지 않는 민박이지만 민박비만큼은 후하게 지불하자고 예산팀도 힘을 보태주었고, 그 결과는 3-4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음주에 캠프들어온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면 이장님 집 전화기가 바빠진다고 했다. 서로 우리집에 민박을 대게 해달라고 난리란다. 민박 집 자체적으로 이불빨래도 하고, 특히 숙박하는 참가자들에게 농산물 등의 작은 선물까지 준비하는 모습속에서 현실적인 변화는 의외로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2. 어린아이들이 보는 눈을 믿어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발굴해내는 것들이 있다. 실제 농촌체험프로그램개발이나 체험마을개발등에 어린 아이들의 선형적 실험이 매우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준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치고 늘 1,2위를 차지하는 선호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을 뒷동산에 염소만 매여있는 동산이 있다. 기획자들은 산책코스만 선정하였지만, 어린 아이들은 이 동산에서 솔방울로 전쟁놀이를 한다. 위험할 것이 없으니 말리는 사람도 없다. 1,2회 진행 후 염소동산 전쟁놀이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었다. 동네 마을회관의 벽장을 보수했다고 한다. 아이들이 들어가서 가장 놀기 좋은 공간이 벽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프로그램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내놀이 1위는 마을회관의 벽장놀이였다. 벽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사물놀이 용품)을 놓아 두었다. 마을 한구석에 몇 달째 놓여있던 모래더미가 갑자기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다. 어른이고 아이들도 신발을 벗어 모래구멍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다. 기획자들은 역시 그냥 지나친 작은 모래더미에서 참가자들은 한 시간이 넘게 논다.

3. 농사체험속에서 본 농촌의 현실

모내기와 상추따기, 감자캐기등을 진행하면서 많은 고민속에 휩싸였다. 마을 주민들은 농사체험은 단순한 도시 주민들의 놀이거리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 고추밭 망가지고 상추밭 망가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참여하는 도시민들도 얼마든지 진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노동력제공의 문제와도 큰 연관이 있다. 즉 도시민들도 이제는 단순한 체험이 아닌 진지한 노동으로서 농사일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감자캐기, 무려 두시간이 넘게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은 매우 힘들어 했지만, 정해진 구역의 감자를 모두 캐고 나니 밭주인도 놀라는 눈치였다. 이제 단순한 농사체험보다는 일손 돕기 형태로 진행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할 것이다.

4. 경관자원에 대한 시각들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관을 보는 수준이 매우 높다.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실제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고수준의 경관자원보다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평이한 농촌경관에도 큰 감흥을 받는데, 그 과정에도 반드시 지역주민의 삶과 애환,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해 줄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듯 하다.

맺는말

올 겨울 매동마을을 떠나올때 매동마을 앞에 지어지고 있는 숙박과 체험시설을 보면서, 빈집캠프의 애초 취지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음에 심한 자괴감에 시달렸으나,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들로 새로운 힘을 내본다. 빈집캠프를 통해 작은 것이지만 매동마을 주민들은 보고, 느끼기 시작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다만 도시민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나갈 때 농촌에도 새로운 희망이 보여 질 것이라는 믿음을 확인하며, 성원해주신 매동마을 이장님과 어르신들, 후원해주신 교보생명문화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글을 맺는다.

6) 지원금 집행내역서

▷ 교보생명 지원금(900만원정)

항 목	금 액(원)	집행근거	비 고
식 대	2,020,000	4식 및 간식	
차량임대	1,800,000	450,000 x 4회	
숙 박 비	1,000,000	25,000원 x 40가족	
강 사 료	1,630,000	100,000 x 16인 30,000 x 1인	
야밤놀이	700,000	100,000 x 7인	
재 료 비	534,020	접토, 문구 및 비상약품	
현 수 막	310,000	4 기	
보고서발간	503,152	40page x 60부	
답사 및 보수	397,000	가마보수 200,000 x 1회 답사 2회	
보 험 료	61,590		
기타비용	45,500	송금수수료	
총 액	9,001,262		이자 1,262원

▷ 자부담(100만3만9천5백원정)

항 목	금 액(원)	집행근거	비 고
출장비	266,000	4회 출장비	
빈집보수비	180,000		
보조강사비	350,000	5인 * 70,000원	
행사후평가 (식사)	243,500	4회 행사후 평가	
총 액	1,039,500		

첨 부 자 료

[첨부자료]

1. 참가자 소감문

즐거운 염소동산에서...

- 진정희 -

아침6시.....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오늘이 가는 날 이잖아요."

아이들 성화에 못이겨 일찌감치 아침식사를 하고 졸린눈을 비빈채 출발시간보다 한시간이나 먼저 도청 2청사앞에 도착했다.

'친구들은 언제오나, 언제 출발하나'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온갖 기대를 잔뜩하게 만든 여행의 목적지는 남원 매동마을에서의 "빈집에서 놀자"였다.

봄에는 모심고, 여름에는 참새쫓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자연과 함께 숨쉬고 그속에서 자랐던 나의 어린시절 추억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은 세상살이로인해 뒷전에 밀린채 어쩌다 아이들에게 엄마의 어린시절을 얘기할때만 가끔씩 꺼내보곤 하는게 전부였다. 마을 뒷산에 동네친구 모두 모여 편을 가르고 전쟁놀이를 하며 하루해를 꼬박 보내버린 시절이 그동안 나만의 추억이었다면 이제는 내 아이들에게도 그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는게 이번 체험 활동에서의 가장 큰 수확이었다.

매동마을에서 아이들이 직접 캔 감자를 맛있게 찌먹었던 일이며 빈집에서의 활동들.... 솓대 만들기 그리고 염소가족이 풀을 뜯고 있던 마을 뒷산을 염소동산이라 부르며 솔방울 전쟁놀이에 푹 빠졌던 일들.... 한 가족이 같은 추억거리를 가지고 세대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연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 놀잇감인지, 그래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위해 어떻게 노력해야하는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만들었던 솓대가 지금 우리집 현관앞에서 작고 어설피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족의 안녕과 사랑을 지켜주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추억들이 밑거름이되어 좀더 풍성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동마을에 다녀와서...

- 최상일 -

새벽같이 일어나 운봉이네랑 엄마 친구네 가족이랑 함께 남원 매동마을에서 하는 '빈집에서 놀기'에 갔어.

우선 도착 해서 농도 실험을 했어.

실험을 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 내가 좋아하는 콜라에 각 설탕이 약 24개나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야.

사이다는 이보다 더 많이 들어있었구 그중엔 그나마 가장 적은것이 2%부족할 때, 포카리스웨트 같은 이온음료 더군.(다른 음료수에 비해 양은 적지만 이온 음료에도 설탕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놀라웠어.)

“음료수들은 모두 설탕 덩어리더라구 ”

앞으론 되도록이면 음료수를 절제를 해야 할 것 같아.

이런걸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할텐데.....

농도실험이 끝나고 조금 논 다음 점심밥을 먹었어.

내가 싫어하는 시골 나물들이 주로 나왔지만, 집에서와는 다르게 다먹었어.

밥을 다 먹구 아이들을 모아 잠자리를 잡으러 갔어. 시골이라서 그런지 잠자리가 많아 7마리 쯤 잡았어.

이후에 빈집으로 가서 찰흙으로 악어를 만들었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웠지만 다 만들고나니 뿌듯했어.

다시 아이들과 내가 염소동산이라고 이름 지어준 언덕에서 솔방울 전쟁놀이를 했어. 아이들은 아주 재미있어했지.

솔방울전쟁놀이를 계속하고 난 후 선생님들께서 닭싸움을 해서 우리가 이기면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기로 하셨어.

결과는 우리의 승리~~~!!

하지만 선생님은 아이스크림대신 수박을 사오셨어. 화가 났지만 당도실험에서 배운걸 생각하고 참고 수박을 맛있게 먹었어.

20분 쯤 지나자 감자를 캐러갔어. 감자캐기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재미있었어. 평소에 주말농장에서 잡초를 많이 뽑아 봐서 감자를 잘 캐 수 있어. 땅 속에서 그렇게 많은 감자들이 나오다니. 너무 신기했어. 모두 힘을 합치니 박스로 10개쯤 캐진 것 같았어.

빨간 감자 찌먹으니 맛나더군 아무래도 내가 캐서 더 맛난 느낌이 들더라고.. 많이 힘들고 TV이도 못보고, 게임도 못해서 지루하기는 했지만 푸른산으로 다 둘러진 자연속에 있어서 기분은 좋았어.

매동마을에 가족과 함께

- 문성숙 -

가족이 참여 하는 캠프라 기대가 많았는데 여름방학내내 아이들과 부산을 떨고서 그 막바지에 가는 캠프라 부담이 컸는지 여러 가족이 참여하지는 못한거 같아 아쉬움이 컸다.(엄마가 아이들과 온 가정이 많았다.)

나야 뭐 여자들 특유의 수다와 또 참여한 엄마들이 또 워낙 정겨워서 그 재미 또한 만만치 않았던게 사실인거 같다.

빈집에서 토우 인형을 만들때 아~ 이렇게 진흙을 맘껏 문지르며 놀았던게 언제이던가 싶기도 했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나무목걸이를 만들때도 정말로 정성껏 사포로 문질러 만들었다.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따는게 상당히 재미있었지만 사실 고추줄기가 조심하는데도 자꾸 떨어져서 지금도 걱정이 되는데 운영위원님 고추밭은 무사한지 모르겠다.

여러가지 좋은추억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욕심을 더하자면 아쉬기도 했다. 가족끼리의 애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쯤 더해 졌으면 하는 아쉬움과 시골에서 느낄 꺼라 기대했던 할머니의 정은 느낄 사이가 없었다. 아이에게 시골 할머니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사실 시골분들이 더 바쁘셔서 얼굴 보기가 정말 어려웠고 식사 준비하시는데 젊은것이 놀자니 죄송하기도 했다.

다음 '빈집에서 놀기'에서는 시골음식 만들어 보기 같은걸 하나쯤 넣으면 좋을 텐데란 생각을 했다. 그걸 만들면서 얘기도 하고 다 만든 후 나눠 먹기도 하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어쨌거나 고기찬도 없는 시골찬이라고 자꾸 하셨지만 식사는 너무 좋았다. 인스턴트식품 하나 없고, 산에서 나는 산나물로 손수만들어주신 찬들과, 1박2일 동안 과자, 음료수 한 병 없이 우리 먹거리로 아이들이 지낼 수 있다는게 정말로 맘에 들었다.

여기저기 온 사방에 캠프 너무 좋았다고 수다를 떨며 다음달에 꼭 가자고 했다.

9월 캠프에는 많은 가족이 참여해서 가족끼리.또 아빠끼리, 엄마끼리, 아이끼리 경쟁도 하고 우의도 다지는 캠프가 되면 어떨까 싶다.

선생님들과 자원봉사분들 또 매동마을 여러분들 정말로 감싸~~~~~했어여...다음캠프에서 또 만나요.....기대.기대

여유로움이 있는 매동마을

- 백운봉 -

자연의 푸르름과 시골마을의 정겨움에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기억을 남기는 시간들 이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에 쫓기듯 뻘뻘하게 달려온 생활속에서 조금은 여유로운 듯 한 프로그램 짜임에 편안함과 자유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송림(염소동산)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보다 더 천진난만하게 함께 뛰놀던 자원봉사자분들을 정말 감사 드립니다.

빈집이라는 농촌의 폐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타 캠프에서처럼 잘 지어진 건물이 있지는 않았지만 농촌의 비어 있는 빈집에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한다는 것 이 산뜻했습니다.

저녁에 빈집으로 보물찾기 여행도 다녀오면서, 어렸을적 동네 친구들과 빈집이나 무덤가에 담력내기 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글구, 하룻동안 신세진 민박집 할머니 감사합니다. 농사일로 피곤 하 실 텐데도 저녁에 이것 저것 챙겨주시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빈손으로 보내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싸주신 산나물이며 농산물들 맛있게 잘 먹구 있습니다.

1박2일이지만 매동마을 어르신들...님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갈 때 간식으로 먹으라며 찌주신 감자 진짜루 맛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런 기회가 생기면 아이들과 다시 함께 와야지라고 오는 차속에서 생각했습니다. 1박 2일간 짧은 시간이지만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자원봉사 선생님들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여유로움이 있는 매동마을

- 이은영 -

어릴적 방학만 되면 시골 할머니댁에 들어가 끝날때까지 산이며 들로 놀러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 매일 아파트 단지안에서만 생활하다가 맑은 공기 마시며 염소동산에서 뛰어 노는걸 보며 행복했습니다.

또한 산속에서 자라는 산나물을 보며 이런 걸 먹고살아야 하는데란 생각에 귀농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장님 말씀에 가끔 아이들이 옛날 화장실이 낡설고 급해서 발두렁, 농두렁에 응가를 놓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주일이라도 한달이 가도 잘 썩지를 않는다는 말씀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먹거리를 고쳐야 한다는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많은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먹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로 간식을 만들어줘야지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첫눈내린 매동마을 빈집캠핑에서...

- 이도훈 -

캠핑에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참가했다. 항상 바쁜 엄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엄마랑 누나랑 나랑 참가하게 됐다.

시골 마을에 도착하여 마을어르신께 인사도 드리고 밤에 놀 쥐불놀이 깡통을 만들었다. 저녁을 먹고난 후 저녁 내내 깡통 돌리기를 하였다.' 휘휘' 도는 소리에 불꽃이 멋지게 모여 움직인다. 같이 간 명지누나는 논두렁에 빠져 입을 크게 벌리고 운다. 다 커서 울다니 웃긴 누나다. 나는 아무리 아파도 잘 울지 않는데...

못을 박아 깡통에 구멍을 낸 후 불을 붙여 돌려보니 책에서는 빨간 불빛만 보여 재미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직접 해 보니 캄캄한 밤에 빨간 불빛을 보며 돌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되어 신기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깡통에 구멍을 많이 내서인지 다른 아이들 깡통보다 내 깡통에 불이 더 잘 붙어서 기분이 좋았다.

모닥불에 고구마도 "호호" 붙어서 먹다 내 입은 까만 입이 되었다. 그래도 신난다.

오늘 하루 열심히 놀라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다. 자야겠다.

"도훈아!. 아침이다. 일어나자. 밖에 눈이 왔어."

"거짓말이죠. 일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냐,나가봐,"

엄마의 말이 진짠지 밖을 쳐다보니 진짜 눈이다.

이렇게 올 첫눈을 남원 매동마을에서 보게 되었다.

덕우, 준우, 지훈이, 정훈이 깨워서 밖에서 신나게 눈을 뭉치며 놀았고, 엄마는 춥다고 옷을 입으라 부르신다. 안 들은 척 신나서 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아침 산책을 가신다 하여, 우리는 신나게 따라 나섰다.

중턱쯤 가니 수북히 쌓인 발 위로 뒹굴며 노느라니 아침해가 떠오른다.

정말 예쁘다.

눈이 와서 그런지 정말 멋지다.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긴 한데 정말 멋지다.

선생님이 떠오르는 아침해를 보면서 새해 소망을 빌어보라 하신다.

"나는 다음 해에도 좋은 캠프에 가서 많은 보람과 경험을 느끼고, 그 곳에 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도 정도 많이 쌓고 싶어요. 좋은 캠프를 다녀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여 가족을 기쁘게 하고 싶고, 학교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으면 해요."

아침산책이후에 먹은 밥은 다른때 보다 더욱 맛있었다. 내가 싫어하는 나물반찬들이지만 아침산책 후에 배가 많이 고팠나보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먹는 밥이라서 그런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밥을 다 먹을 수 있었다.

마을할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는 방법에 따라서 새끼꼬기를 했다. 처음하는거라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됐지만 조금 하다보니 제법 할 수 있었다.

"엄마! 이것봐 나 새끼꼬기 잘 했지."

내가 만든 새끼줄을 머리에 둘러 묶고 친구들과 밖으로 나갔다

"애들아 우리 새끼줄로 줄넘기하고 놀자."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내기하자."

우리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자원봉사 선생님이랑 진행팀 선생님들 묶으러 다니면서 포박놀이를 하고 있었다. 뭐 관청놀이라나 뭐나라....

그리고 가오리연을 만들어 날리면서 내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소원도 빌어 보았다.

이후에 직접 만들어본 인절미는 정말 맛있었다. 방금 만들어서 따끈 따끈한 것이 먹어도 먹어도 계속 들어가서 배가 똥똥해졌다. 다음에 누나랑 엄마랑 집에서 다시 만들어 봐야겠다.

2. 보도자료

날 짜	구 분	비 고
2005.06.22	인터넷참소리	빈집캠프소개 인터뷰방송
2005.08.09	조선일보	A12면
2005.08.17	전라도닷컴	(www.jeonlado.com)
2005.08.24	전주kbs라디오 '생방송 전북은 지금'	빈집캠프소개 인터뷰방송
2005.09.01	전주kbs '투데이 전북' -vj세상보기	방송 6분부터~16분까지 (총 방송시간 10분)
2005.09.01	전주mbc '열려라 TV'	방송33분부터~43분까지 (총 방송시간 10분)
2005.09.02	전주mbc '출발 3道는 지금'	(총 방송시간 10분)
2005.12.01	전주MBC라디오 943전망대	빈집캠프소개 인터뷰방송
2005.12.01	김차동의FM모닝쇼	행사소개
2005.6.~2005.12.	새전북신문, 전북 중앙일보, 전북지역 케이블방송 한빛넷, 교차로 등 10여 차례 홍보됨	행사알림 소개